

## 농업 고용인력 최근 동향과 시사점

마상진·이형용·김재휘

## 요약

## 농림어업 취업자 6년 연속 증가세

- 2022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52.6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6.7만 명 증가함. 2017년부터 6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며,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50만 명을 넘어섬. 전체 산업인구 대비 농림어업 취업자(5.43%)도 전년(5.35%) 대비 증가함.
- 연령별로 50대 이하는 감소하고 60대 이상이 증가. 농가 취업자가 증가하고, 비농가 취업자는 감소함.

## 농림어업 고용인력은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농림어업 고용인력(임금 근로자)은 2022년 기준 11.9만 명으로 전체 농림어업 취업자의 7.8%를 차지. 농림어업 비임금 근로자(경영주, 가족종사자)는 전년 대비 6.7만 명 증가한 반면, 고용인력은 전년 대비 1.8천 명 감소함.
-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 기간(2017~2022년)에도 고용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고용인력 중에서도 일용 근로자 중심으로 감소함(상용, 임시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유지됨).
- 일용 근로자 중심의 농림어업 고용인력 감소는 총 수요의 감소보다는 특정 시기 계절적으로 물리는 단기 인력 수요에 적시 공급이 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됨.

## 2023년 농업 고용인력 수급 사정은 수요 감소와 공급 확대로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

- 2023년 작년 대비 농업 재배면적, 가축사육두수의 감소 및 농업 생산액 감소에 따라 농업 분야 고용인력 수요는 작년 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 올해 농림어업 인력 공급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정책적으로도 내국인 및 외국인 농업 인력 공급(농촌인력증개센터 확충, 도농인력증개플랫폼을 신규 구축, 고용허가제 및 계절 근로 배정 인력 확대 및 공공형 계절근로제 본격 시행)이 확대될 전망이다.
- 농업 고용인력 수요 감소와 공급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농업 고용인력 수급 사정은 작년보다 나아질 전망이다.

## 농업 고용인력 지원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농업 현장 수요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정책 추진 필요

- 2023년 2월 농어업 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가 마련됨에 따라 정기적인 농업 고용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안정적인 지원정책 추진이 예상됨.
- 향후 지역별 농업 인력 수급 관리 및 인력 부족, 임금 상승 등 현장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력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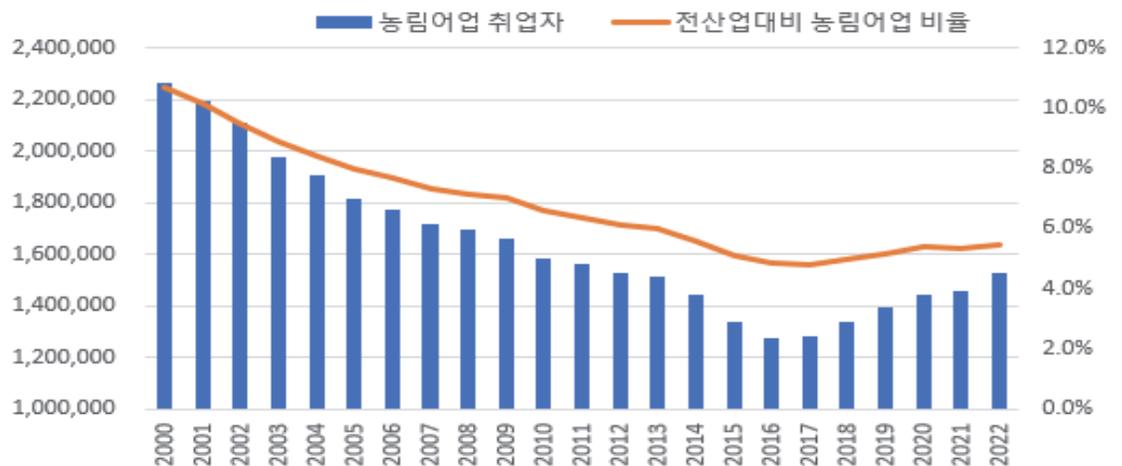
## 01

## 농림어업 취업자 동향

## 2022년 농림어업 취업자 전년 대비 6.7만 명 증가, 2017년부터 6년 연속 증가세

- 통계청의 20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농림어업 취업자는 152.6만 명(2013년 이후 처음으로 150만 명을 넘어섬)으로 전년 대비 6.7만 명 증가하였음(그림 1).
- 농림어업 취업자는 2017년부터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감(2016년 127.3만 명 → 2017년 127.9만 명 → 2018년 134.0만 명 → 2019년 139.5만 명 → 2020년 144.5만 명 → 2021년 145.8만 명 → 2022년 152.6만 명)(최근 6년 평균 전년 대비 4.2만 명 증가).
- 전체 산업 취업자(2,809만 명) 대비 농림어업 취업자는 5.43%로 전년(5.35%)에 비해 소폭 증가함(2016년 4.8%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그림 1〉 농림어업 취업자 및 전산업대비 농림어업 비율 변화: 2000~2022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농림어업 취업자는 60대 이상 연령층 증가, 30대 이하 및 40~50대는 감소

- 농림어업 취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 8.9만 명(5.8%), 40~50대 35.4만 명(22.2%), 60대 이상 108.3만 명(71.0%)이었음(표 1). 전년 대비 30대 이하에서 2.4천 명, 40~50대에서 7.8천 명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에서 7.8만 명 증가함.

- 60대 이상 연령대의 증가세는 2017년부터 계속 이어졌지만(전년 대비 +5.4만 명), 30대 이하는 지난 4년의 증가세를 잇지 못하고 2년 연속 감소세, 40~50대는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임.

〈표 1〉 연령대별 농림어업 취업자 변화: 2010~2022년

단위: 천 명

연도	연령				전체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2010	107.0	204.6	388.3	886.4	1,586.3
2011	104.3	186.7	383.7	888.0	1,562.7
2012	104.3	160.5	371.4	894.3	1,530.5
2013	103.4	135.9	369.8	904.0	1,513.1
2014	90.0	133.7	353.0	869.4	1,446.1
2015	78.9	127.8	318.1	812.6	1,337.4
2016	74.3	119.5	289.3	789.4	1,272.5
2017	78.0	112.4	282.2	806.0	1,278.6
2018	89.6	105.3	280.4	864.8	1,340.2
2019	89.7	120.8	288.2	896.2	1,394.9
2020	97.3	122.2	273.7	951.8	1,445.1
2021	91.0	107.7	254.1	1,005.5	1,458.3
2022	88.5	102.7	251.3	1,083.2	1,525.7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농가의 농림어업 취업자는 증가한 반면, 비농가 취업자는 감소**

- 가구유형별 농림어업 취업자는 농가 출신이 131.0만 명(85.9%), 비농가 출신이 21.6만 명(15.0%)이었음. 농림어업 취업자 중에 농가 취업자는 증가(전년 대비 +7.0만 명)한 반면, 비농가 취업자는 감소함(전년 대비 -0.3만 명)〈표 2〉.
- 지역별 농림어업 취업자는 농촌이 119.6만 명(78.4%), 도시가 33.0만 명(21.6%)이었음. 농촌 농림어업 취업자뿐 아니라, 도시 농림어업 취업자 역시 증가함(농촌 전년 대비 4.0만 명, 도시 2.7만 명 증가).

〈표 2〉 가구·지역유형별 농림어업 취업자 변화: 2010~2022년

단위: 천 명

연도	가구유형		지역유형		전체
	농가	비농가	도시	농촌	
2010	1,354.7	231.6	312.1	1,274.2	1,586.3
2011	1,339.4	223.3	319.0	1,243.7	1,562.7
2012	1,312.8	217.7	318.1	1,212.3	1,530.5
2013	1,292.0	221.1	322.9	1,190.2	1,513.1
2014	1,242.3	203.7	286.2	1,159.9	1,446.1
2015	1,153.6	183.8	279.6	1,057.8	1,337.4
2016	1,068.5	204.0	275.5	997.0	1,272.5
2017	1,068.1	210.5	278.4	1,000.2	1,278.6
2018	1,131.5	208.6	269.5	1,070.7	1,340.2
2019	1,186.8	208.1	283.8	1,111.1	1,394.9
2020	1,217.8	227.3	304.7	1,140.4	1,445.1
2021	1,240.0	218.3	302.8	1,155.5	1,458.3
2022	1,310.2	215.5	330.2	1,195.6	1,525.7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02

## 농림어업 고용인력(임금 근로자) 동향

농림어업 고용인력은 11.9만 명으로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의하면 농림어업 취업자 중에 고용인력(임금 근로자)은 2022년 현재 11.9만 명으로 전년 대비 1.8천 명 감소하였고, 전체 농림어업 취업자의 7.8%를 차지함. 고용인력 중 상용 근로자는 3.1만 명, 임시 근로자 4.2만 명, 일용 근로자는 4.6만 명임. 비임금 근로자인 경영주는 100.9만 명(66.1%), 가족종사자가 39.7만 명(26.0%)으로 전년 대비 6.7만 명 증가함<표 3>.
- 2010년 이후 농림어업 고용인력수 변화를 보면 2018년 한 해(1.5천 명 증가)를 제외하고는 매년 4.8천 명씩 감소함. 2010년 고용인력은 17.6만 명이었는데, 2015년 13.5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 12.6만 명, 2022년 11.9만 명으로 감소함.

<표 3> 종사상 지위별 농림어업 취업자 변화: 2010~2022년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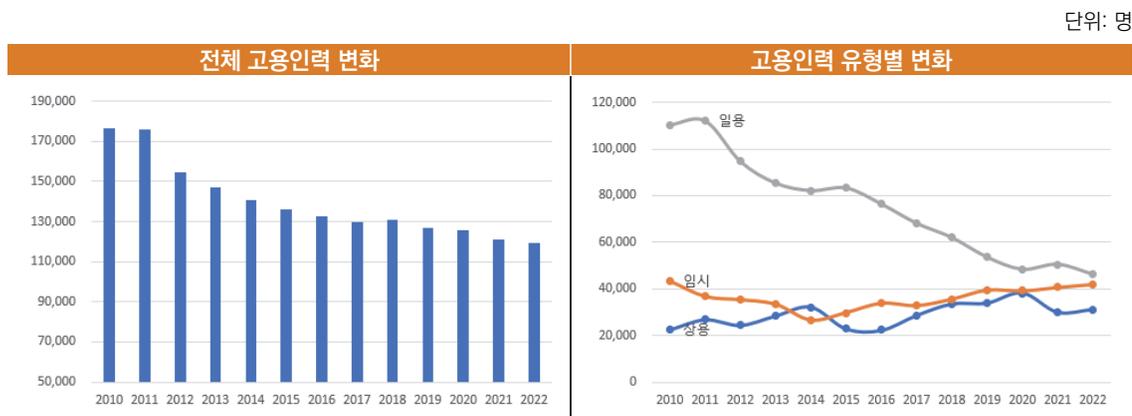
연도	종사상 지위						전체
	고용인력			경영주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임시	일용	고용	무고용		
2010	22.6	43.6	110.4	54.8	931.7	423.3	1,586.3
2011	26.8	36.8	112.1	49.9	919.4	417.8	1,562.7
2012	24.5	35.4	94.6	43.5	906.8	425.8	1,530.5
2013	28.4	33.4	85.4	49.0	896.2	420.8	1,513.1
2014	32.1	26.4	82.1	45.4	866.6	393.4	1,446.1
2015	22.9	29.7	83.3	53.6	792.2	355.6	1,337.4
2016	22.3	33.8	76.4	42.4	770.8	326.8	1,272.5
2017	28.6	32.8	68.1	38.7	787.8	322.6	1,278.6
2018	33.4	35.6	62.0	49.4	801.3	358.4	1,340.2
2019	33.8	39.6	53.6	61.3	821.5	385.1	1,394.9
2020	38.1	39.2	48.4	59.7	859.4	400.3	1,445.1
2021	30.0	40.7	50.5	55.5	886.2	395.4	1,458.3
2022	31.2	42.0	46.3	59.9	949.1	397.3	1,525.7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농림어업 고용인력 중 상용·임시 근로자는 증가, 일용 근로자는 감소

- 농림어업 고용인력의 감소는 주로 일용 근로자의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고용인력 중에서도 상용·임시 근로자 수는 지난 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상용 근로자는 3만 명, 임시 근로자는 4만 명 내외)한 반면, 일용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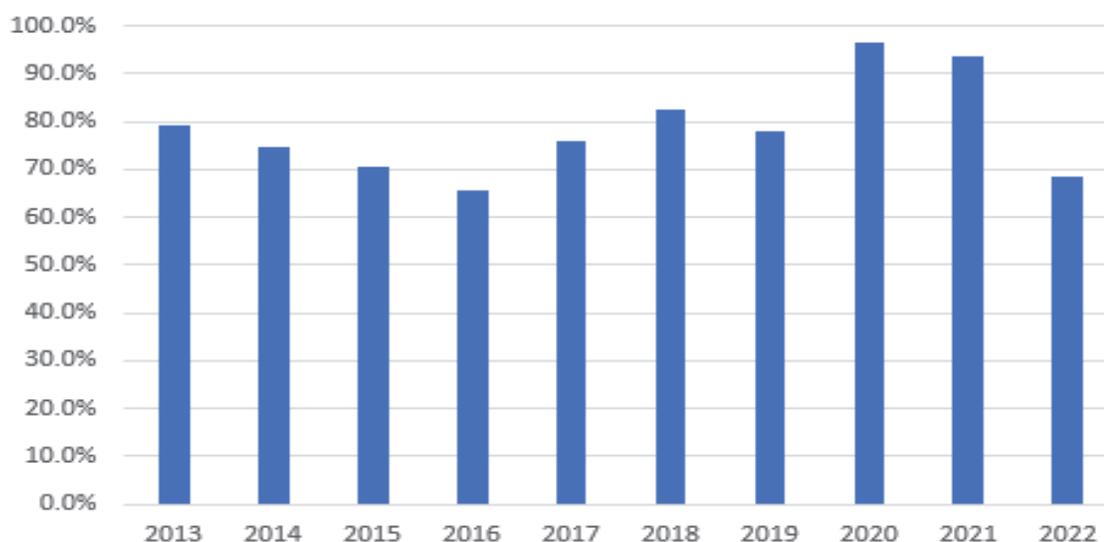
〈그림 2〉 농림어업 고용인력 수 및 고용인력 유형별 변화: 2010~2022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농림어업 분야 고용인력의 지속적 감소는 농업 기술 발전 및 농업 기계화 등에 따른 생산성 증가로 인한 농업인력 수요 감소도 있지만 공급 부족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2013년 이후 정부의 워크넷1)에 등록된 연도별 구인, 구직 현황(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을 보면 농림어업직 분야는 항상 구직자보다 구인자가 많았는데, 2013~2022년 기간 구인자 대비 구직자 비율은 78.5%였고, 2022년은 68.6%였음(그림 3). 임진영 외(2020)의 농가 대상 조사에서도 대다수 농가가 인력 부족으로 적기 영농 작업이 힘든 상황(조사 대상 농가의 60% 이상이 인력 부족)이었음.

〈그림 3〉 워크넷 농림어업 구인자 대비 구직자 비율 변화: 2013~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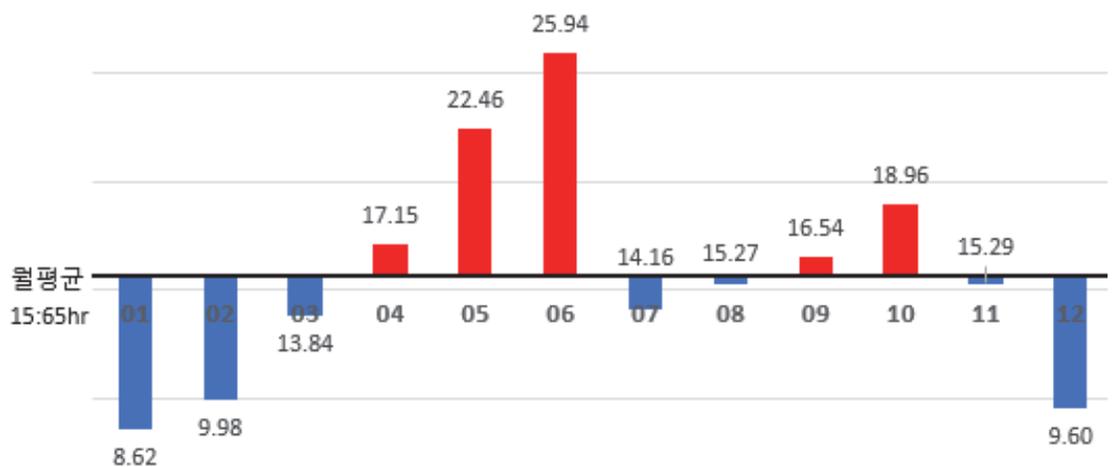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행정통계.

1) 전국 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시·군·구 등에서 입력한 자료를 집계한 값임.

## 농업 고용인력 최근 동향과 시사점

- 농업 분야 고용인력은 대부분이 특정 기간에만 활용되는 1개월 미만의 단기 일용직으로, 통계청(2020) 농업총조사에 의하면 농가 중 고용인력 활용농가는 전체 농가의 17.8%인데, 고용농가 중 73.6%(전체 농가 중 13.1%)는 고용인력을 1개월 미만만 활용하고, 6개월 이상 활용하는 경우는 9.0%(전체 농가 중 1.6%)였음. 통계청(각 연도)의 농가경제조사에 의하면 농가의 월별 고용인력 활용시간은 15.65시간인데, 4~6월 및 9~10월에 평균 이상으로 활용(6월이 25.94시간으로 최고점)함<그림 4>. 즉 농업 분야 고용인력 수요는 일 년 내내 많은 것이 아니라 봄철 파종기 및 가을철 수확기에 특히 몰리고 이러한 계절적 인력 수요는 대부분 일용 노동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공급이 이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림 4> 농가의 월평균 고용인력 활용시간(2019~2021년 평균)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농림어업 고용인력 중 상용·임시는 50대 이하, 일용은 60대 이상이 과반 이상을 차지

- 농림어업 고용인력의 연령대를 보면 30대 이하가 22.1%, 40~50대가 37.6%, 60대 이상이 40.3%로 농림어업 취업자의 연령대별 비율(30대 이하 5.8%, 40~50대 22.2%, 60대 이상 71.0%)과 비교시, 고용인력 중 상대적으로 30대 이하 및 40~50대 비율이 높음<표 4>.
- 상용·임시 근로자는 50대 이하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일용 근로자는 60대 이상이 과반 이상을 차지함. 상용 근로자는 30대 이하 25.8%, 40~50대 54.0%(50대 이하가 79.8%), 60대 이상이 20.2%였음. 임시 근로자는 30대 이하 28.6%, 40~50대 33.9%(50대 이하가 62.5%), 60대 이상이 37.5%였음. 반면 일용 근로자는 60대 이상이 56.4%로 가장 많고, 40~50대(29.9%), 30대 이하(13.7%) 순이었음.

〈표 4〉 농림어업 고용인력 현황: 2022년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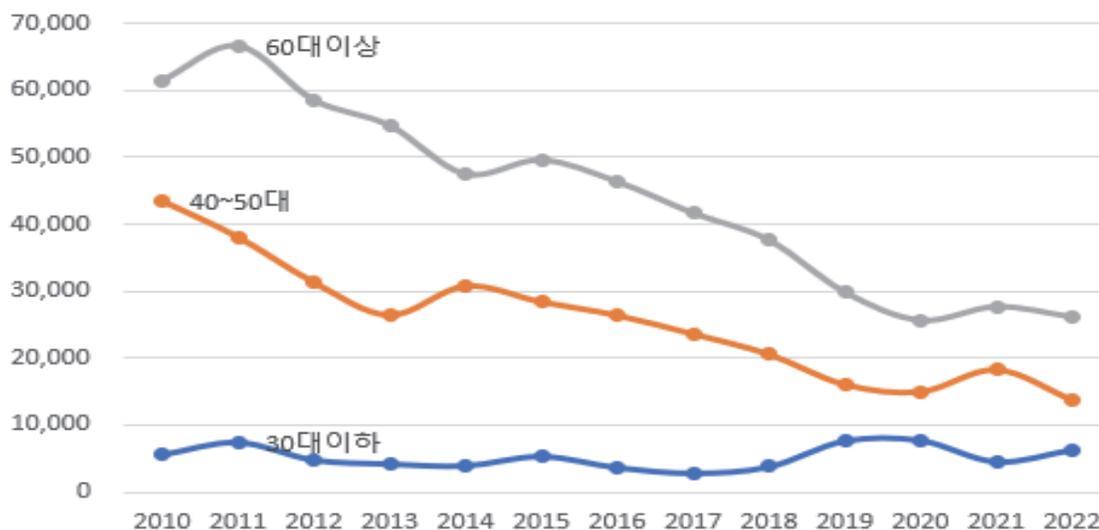
연령	고용인력						전체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종사자	비율	종사자	비율	종사자	비율	종사자	비율
30대 이하	8.0	25.8	12.0	28.6	6.4	13.7	26.4	22.1
40~50대	16.8	54.0	14.3	33.9	13.8	29.9	44.9	37.6
60대 이상	6.3	20.2	15.8	37.5	26.1	56.4	48.2	40.3
전체	31.2	100.0	42.0	100.0	46.3	100.0	119.5	100.0

자료: 통계청(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 일용 근로자의 주 공급 연령층인 60대 이상 고령층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2011년 60대 이상 일용 근로자는 6.7만 명이던 것이 2015년 5.0만 명, 2022년 2.6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함. 60대 이상 고령층의 일용 근로 참여 감소는 농가 고령화에 따라 더 이상 농업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노령층의 늘어나고, 비농업 분야 및 공공근로 등과의 노동 시장 경합에서 밀리기 때문임(엄진영 외, 2020; 마상진, 2022). 이는 농업 분야 일용 노동 공급 부족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그림 5).

〈그림 5〉 연령대별 일용 근로자 수 변화: 2010~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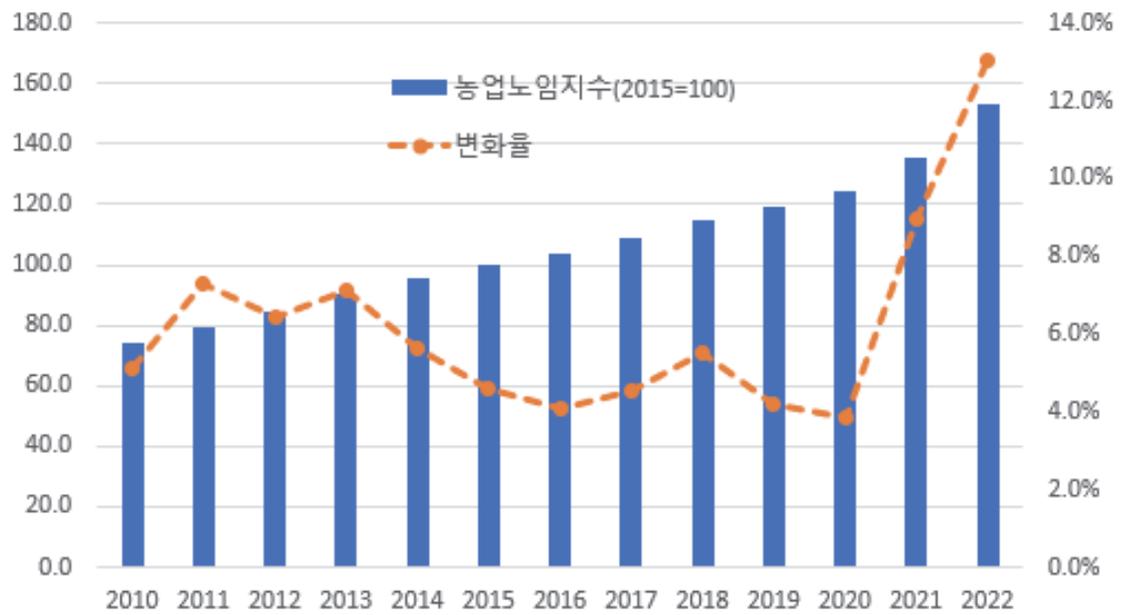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최근 농업 노임이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2010~2020년 기간 연 5%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던 농업 노임은 2021년 8.9%, 2022년 노임지수는 152.9(2015=100)로 전년 대비 13.0% 상승함(그림 6). 이는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요인과 더불어 적시 농업 고용인력 공급 부족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6〉 농업 노임지수 변화: 2010~2022년(2015=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2023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 03

## 2023 농업 고용인력 수급 여건 전망

## 농업 고용인력 수요 감소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이 전망한 2023년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1.0% 줄어든 151.7만 ha, 재배 면적 역시 전년 대비 0.2% 줄어든 159.8만 ha(식량작물 -0.8%, 채소 1.1%, 과수 -0.3%, 특용·약용 -10.3%, 기타작물 5.0%). 축산의 경우 2023년 가축 사육두수가 1억 8천 9백만 마리로 전년 대비 1.5% 감소할 전망이다(소 0.5%, 젖소 -2.8%, 돼지 -0.3%, 육계 -1.3%, 오리 -7.6%, 산란계 -1.2%) <표 5>.

〈표 5〉 농업 경지·재배면적·사육 마릿수 동향과 전망

단위: 천 ha, 백만 마리

	구분	2002년	2021년	2022년 (추정)	전망		
					2023년	2027년	2032년
재배	경지면적	1,863	1,547	1,532	1,517	1,503	1,480
	재배면적	2,020	1,614	1,601	1,598	1,569	1,531
	-식량작물	1,300	905	902	895	861	831
	-채소	334	260	247	250	246	241
	-과수	166	153	159	158	155	150
	-특용·약용작물	94	75	79	71	78	81
축산	사육 마릿수	123.0	185.3	191.8	189.0	193.0	199.4
	우제류(소, 돼지)	10.8	15.2	15.5	15.4	15.5	15.9
	가금류	112.1	170.1	176.3	173.5	177.5	183.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2023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 이에 따라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1.2% 감소한 57조 9,340억 원으로, 재배업은 전년 대비 0.6% 감소, 축잡업은 1.9% 감소가 전망됨(표 6). 재배업 중 식량작물은 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1.9% 감소, 채소는 일부 양념 채소와 과채의 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 과실은 배, 단감 등 주요 품목의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가 전망됨. 축잡업 중 한육우와 돼지는 공급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여 각각 전년 대비 4.4%, 3.1% 감소, 닭은 도축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 오리는 생산량 감소폭이 가격 상승폭보다 커 전년 대비 1.4% 감소, 계란은 종계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 대비 0.7% 증가할 전망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표 6〉 농업 생산액(명목) 동향과 전망

단위: 십억 원

구분	2002년	2021년	2022년 (추정)	전망		
				2023년	2027년	2032년
농업 총생산액	32,164	59,217	58,631	57,934	59,685	62,550
재배업	23,112	34,624	33,123	32,919	33,021	33,810
-식량작물	10,476	11,950	11,430	11,215	10,139	9,426
-채소	6,769	13,223	12,789	12,761	13,466	14,452
-과실	2,583	5,683	4,919	4,800	4,967	5,096
-특용·약용작물	632	1,726	1,744	1,773	1,974	2,161
축산업	9,052	24,593	25,508	25,015	26,665	28,741
-한육우	2,136	7,232	6,439	6,157	6,395	7,320
-돼지	2,918	8,479	9,513	9,221	10,078	10,474
-닭	729	2,274	2,906	2,919	151	3,368
-계란	732	2,470	2,322	2,339	2,401	2,464
-우유	1,573	2,161	2,141	2,185	2,213	2,477
-오리	475	1,206	1,465	1,445	1,643	1,808
-기타	488	771	722	751	784	83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2023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 단기적 인력 수요 변화는 농업 재배면적, 가축 사육두수 변화에 의해 영향<sup>2)</sup>을 받는 바, 올해 전반적 인 영농 규모의 감소에 따른 농업 생산액 감소로 인해 농업 분야 고용인력 수요는 작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 품목<sup>3)</sup>의 경지면적 및 사육두수 변화에 따라 고용인력 수요 변화를 추정할 결과 작년 대비 -0.4% 정도(경종 -0.3%, 축산 -0.5%)의 수요 변화가 있었음.

### 국내외 농업 고용인력 공급 증가 전망

- 내년도 농림어업 인력 공급은 작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정대희, 김지은(2017)<sup>4)</sup>의 취업자 증감분해방법을 활용하여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및 한국고용정보원(2022)의 산업별 취업자 전망치(농림어업 취업자가 2021~2026년 연평균 0.4% 증가) 등에 비추어 성별·연령별 전체 인구 중 농림어업 종사 비율 변화 및 생산가능 인구(15세 이상) 중 농림어업 종사비율 변화를 고려하고 추정해보면, 인구 고령화(인구 구조 변화)에 의한 인력 공급량이 2.8만 명, 인구 증가에 의한 인력 공급량이 2.1만 명 등 작년보다 4.9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표 7).

2) 김정섭 외(2016)는 고용인력 추정을 경종 분야 고용 노동수요는 '재배면적×단위면적당 노동투입량'으로 추정함.

3) 모든 품목의 단위면적 및 사육두수 당 노동투입량 자료가 제공되지 않기에 여기에서는 쌀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 고용인력 수요가 많은 경종 작물과 한우, 육우, 젓소, 비육돈, 닭 등의 축산 품목에 한해 분석함. 단위면적 및 사육두수 당 노동투입량은 통계청 농축산물생산비조사와 농촌진흥청의 농산물소득조사의 최근 3년(2019~2021년)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4)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취업자 증감을 산업별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공급 부분과 노동수요를 반영하는 부분으로 분해(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 수요측면(① 고용률 변화)+공급측면(② 인구구조 변화 ③ 인구수 변화))하여 분석함. 자세한 분석 방법은 부록 참조.

〈표 7〉 농림어업 취업자 증감 분해 결과: 2010~2022년

단위: 천 명

연도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감	인력 수요	인력 공급		
		고용률 변화	인구비율 변화	인구 변화	합
2010	-73.3	-128.4	33.6	21.5	55.2
2011	-23.6	-76.4	30.9	21.9	52.8
2012	-32.2	-87.1	37.2	17.7	54.9
2013	-17.4	-68.2	34.5	16.3	50.9
2014	-67.0	-119.8	35.3	17.6	52.8
2015	-108.7	-161.7	38.0	15.0	53.0
2016	-64.9	-111.2	34.9	11.3	46.3
2017	6.1	-37.6	34.3	9.5	43.8
2018	61.5	18.8	35.4	7.3	42.7
2019	54.7	10.5	34.5	9.8	44.3
2020	50.2	2.3	39.1	8.8	47.9
2021	13.2	-36.3	39.9	9.5	49.4
2022	67.5	25.4	36.3	5.8	42.1
2023(전망)	6.1	-42.9	28.3	20.6	49.0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장래인구추계, 한국고용정보원(2022),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1~2031.

- 한편, 농림어업 인력 공급에는 정책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국내 농업고용인력 공급과 관련하여 도시지역 구직자 등에 대해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 일손돕기 추진 및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 등 국내 인력 중개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 중으로 올해 관련 사업량 확대로 국내 단기 농업인력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협에서 농촌인력증개센터를 운영하여 농업 분야 국내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증개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184.6만 명을 공급하여 전년 대비 23.6만 명 증가함. 지자체별(도 단위) 자원봉사 네트워크 확보, 사전 일손돕기 계획을 수립 및 적시·적소 지원을 통해 2022년 기준 108.6만 명 공급, 전년 대비 2022년 21.7만 명 증가했음. 이밖에 지역별로 농번기에 20인 내외의 도시인력을 모집, 1개월 내외로 농촌에 체류시키며, 농가에 인력공급(근로자에게 숙박·교통비 지원)하는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운영 중임 <표 8>.
- 농촌인력증개센터(농촌형)를 2022년 154개소이던 것을 2023년 170개소 확대하고, 올 2월 도농인력증개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업 분야 구인·구직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여 국내 유휴 인력의 농촌 일손 지원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표 8〉 최근 5년간 농촌인력증개 실적

단위: 천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농촌인력증개	528	714	1,336	1,610	1,846
농촌일손돕기	302	330	425	869	1,086
합계	830	1,044	1,761	2,479	2,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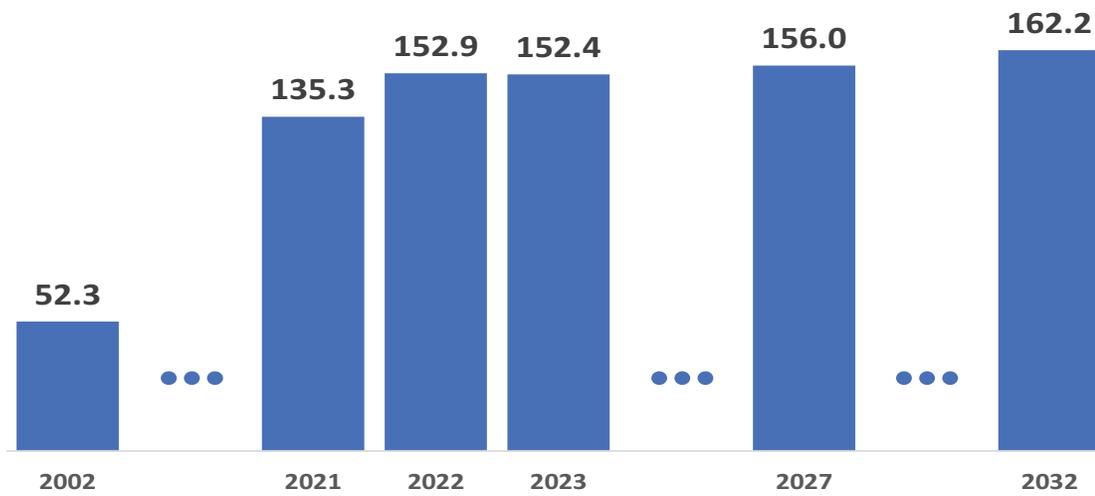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한편,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위해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E-9, 고용부 주관)와 계절근로제(C-4, E-8, 법무부 주관)를 추가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운영 중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장기간(4년 10개월이 기본이고, 1회 동일 사업장 근무를 조건으로 재입국하여 4년 10개월 추가 근무로 최장 9년 8개월 활용 가능) 외국인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연중 고용인력이 필요한 축산·시설원에 분야에 인력을 공급해 줌. 2022년 1.16만 명이 신규 공급되어, 2022년 말 기준 2.41만 명이 체류 중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함.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번기 3~5개월 동안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비교적 단기인력이 필요한 과수·채소류 분야의 인력 활용을 돕고 있는데, 2022년 1.05만 명이 공급됨.
- 고용허가제 및 계절 근로 배정인력이 2023년 크게 확대(전년 대비 고용허가제 4천 명 이상, 계절근로 7천 명 이상 확대) 되었으며, 이밖에 지자체가 송출국과 MOU 등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농협이 고용한 후 영농작업반 형태로 농가에 노동력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22년 시범사업 5개소 → ’23년 본사업 19개소)를 시행할 예정으로 외국인 농업 고용인력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농업 생산량 감소에 따라 고용인력 수요는 소폭 감소할 전망이지만 국내외 농업 고용인력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2023년 농업 고용인력 수급 여건은 전년보다 나아질 전망

- 농림어업 생산량은 작년 대비 소폭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올해 농업 고용인력 수요는 작년보다 증가하지 않지만, 농림어업 인력 공급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적으로도 도농인력증개플랫폼 신규 구축 및 농촌인력증개센터 확대로 내국인 농촌인력 증개가 활성화되고, 등록 외국인 근로자 배정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어서 올해 농업 부문 인력 공급은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따라 수요 대비 농업 고용인력 공급 확대와 더불어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대폭 올랐던 2022년 농업 노임도 올해는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농업구입가격지수 전망에 따르면 올해는 농업 부문의 노임은 전년 대비 0.3% 하락할 것으로 예측함(그림 7). 이는 올해 농업 국내외 고용인력 공급 확대 정책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 따라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음.

〈그림 7〉 노무비 농업구입가격지수 동향과 전망 (2015=100)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2023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 04

## 시사점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50만 명을 넘어섬. 지난 기간(2017~2022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는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과 비임금 근로자(경영주, 가족종사자) 증가에 의한 것으로 50대 이하 연령층과 고용인력은 이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함.
- 농림어업 취업자 중에 고용인력은 2022년 현재 11.9만 명으로 전년 대비 1.8천 명 감소하였음. 이는 일용 근로자 감소에 의한 것으로 2017~2022년 기간 상용·임시 근로자 수는 계속 유지되었지만 일용 근로자는 39.4%나 급감함. 일용 근로자 중심의 농림어업 고용인력 감소는 일용 근로자가 적시 공급이 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됨.
- 농업 재배면적, 가축사육두수의 감소 및 농업생산액 감소에 따라 농업 분야 고용인력 수요는 작년 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이지만, 전반적으로 농업인력 공급이 확대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농업 고용인력 정책 추진에 따라 올해 농업 고용인력 수급 여건은 작년보다 나아질 전망이다.
- 2023년 2월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농업 분야 고용인력 부족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농업고용인력에 관한 지원체계 구축,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등을 통해 안정적 농업노동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 추진이 예상됨.
- 향후 광역 단위 세부 인력수급 관리 계획 수립 및 관련 조직 구성을 통해 지역별·품목별 수요와 일정 관리 등 사업 추진 강화하고, 농번기 인력수요가 많은 주요 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농업 인력 수급 중점 관리가 필요함. 또한 인력 부족, 임금 상승 등 현장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력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 부록

### 산업별 취업자 분해 방법

- 농림어업 인력 공급 추정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다음의 정대희, 김지은(2017)의 취업자 증감 분해 방법을 활용함.
- 특정 시점  $t$ 의 취업자 수( $E_t$ )는 성·연령대별 취업자( $E_{j,t}$ )의 합이며, 성·연령대별 취업자는 고용률, 인구비율 및 전체 생산가능 인구(15세 이상)의 곱임.

$$E_t = \sum_j E_{j,t} = \sum_j er_{j,t} \times p_{j,t} \times p_t$$

$j$ 는 성별 13개 연령집단(15~20세, ..., 70~74세, 75세 이상)

$er_j$ 는 성·연령대별 고용률로, 성·연령대별 취업자( $E_{j,t}$ )를 성·연령대별 인구로 나눈 값

$p_t$ 는 해당 시점의 생산가능 인구수

$p_j$ 는 성·연령대별 인구비율로, 성·연령대별 인구를 15세 이상 인구( $p$ )로 나눈 값

- 두 시점( $t > s$ ) 간 취업자 변화( $\Delta E_t$ )는 성·연령대별 고용률( $er_j$ ), 성·연령대별 인구비율( $p_j$ ) 및 전체 생산가능 인구수( $p$ ) 변화로 분해됨.

$$\begin{aligned} \Delta E_t &= E_t - E_s \\ &= \sum_j er_{j,t} p_{j,t} p_t - \sum_j er_{j,s} p_{j,s} p_s \\ &= \sum_j \Delta er_{j,t} p_{j,t} p_t + \sum_j er_{j,s} \Delta p_{j,t} p_t + \sum_j er_{j,s} p_{j,s} \Delta p_t \\ &\quad \text{(고용률 변화)} \quad \text{(인구비율 변화)} \quad \text{(인구수 변화)} \end{aligned}$$

- 성·연령대별 특정 산업의 취업자( $E_{i,j,t}$ )를 성·연령대별 인구로 나눈 값을 성·연령대별 산업 고용률( $er_{i,j}$ )로 정의하면, 산업( $i$ )별 취업자 증감 분해가 가능

$$\Delta E_{i,t} = \sum_j \Delta er_{i,j,t} p_{j,t} p_t + \sum_j er_{i,j,s} \Delta p_{j,t} p_t + \sum_j er_{i,j,s} p_{j,s} \Delta p_t$$

### 농림어업 취업자수 전망

- 한국고용정보원(2022)의 산업 부문별 중장기 인력전망(2021~2031)에 의하면 농업 취업자는 전반기(2021~2026년)까지는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 증가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가 연평균 0.4% 증

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하반기(2026~2031년)에는 인구 제약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연평균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표 9〉. 즉, 2017년 이후 6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농림어업 취업자는 소폭 상승하거나 당분간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표 9〉 농업 취업자 수 전망: 2021~2031년

단위: 천 명, %

구분	취업자 수				취업자 증감(연평균 증가율)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16~'21년	'21~'26년	'26~'31년	'21~'31년
농업	1,198	1,356	1,386	1,300	158 (2.5)	30 (0.4)	-86 (-1.3)	-56 (-0.4)
-작물 재배업	1,190	1,261	1,286	1,206	142 (2.4)	25 (0.4)	-80 (-1.3)	-55 (-0.4)
-축산업	71	87	91	85	15 (3.9)	4 (0.9)	-6 (-1.3)	-2 (-0.2)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7	8	9	8	1 (3.6)	1 (1.4)	-1 (-1.3)	0 (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22, p282).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1~2031.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각 연도). 고용행정통계.
- 김정섭, 유찬희, 엄진영, 장민기, 김혜인. (2016). 농업 고용 인력 실태 조사 및 수급 안정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촌진흥청. (각 연도). 농산물소득조사.
- 마상진(2022). “2021 농림어업 고용 동향과 시사점.” KREI 현안분석 제88호.
- 엄진영, 박대식, 조승연, 김윤진, 이창원, 최서리, 신예진, 이상지. (2020).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대희, 김지운. (2017). “최근 취업자 증감에 대한 분석 및 향후전망.” KDI경제전망(2017 하반기).
- 통계청. (2022).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통계청. (각 연도).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 통계청. (각 연도). 농축산물생산비조사.
- 한국고용정보원. (2022).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1~203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2023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 KREI 현안분석

감 수 엄진영 연구위원 061-820-2255 jeom@krei.re.kr  
내 용 문 의 마상진 선임연구위원 061-820-2258 msj@krei.re.kr  
발간물문의 유정인 선임전문원 061-820-2282 edela@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http://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98호

## 농업 고용인력 최근 동향과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3. 4.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1147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